



Embassy of Sweden
Seoul

주한스웨덴대사관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8층

T. 02) 3703-3700

www.swedenabroad.se/seoul

[www.twitter.com/Swedeninkr](https://twitter.com/Swedeninkr)

www.instagram.com/swedeninkorea

www.facebook.com/swedishembassyinseoul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 기념

제8회 스웨덴영화제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Embassy of Sweden
Seoul

SI. Swedish
Institute



Swedish
Film Institute



SVERIGE · REPUBLIKEN KOREA
대한민국 · 스웨덴
SINCE 1959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 기념

제8회 스웨덴영화제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wede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제8회 스웨덴영화제 모든 상영작은 무료관람입니다.

Free Admission for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주)광주극장
영화공간주안
동성아트홀

후원

한서문화예술협회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11월 5일(화) - 11월 11일(월)

부산 영화의전당

11월 7일(목) - 11월 13일(수)

광주 광주극장

11월 15일(금) - 11월 19일(화)

인천 영화공간주안

11월 15일(금) - 11월 17일(일)

대구 동성아트홀

11월 22일(금) - 11월 28일(목)

Hosted by

Embassy of Sweden in Seoul
Swedish Institute
Swedish Film Institute

Organized by

BaekDu-DaeGan Films Co., Ltd.
Busan Cinema Center
Cinema Gwangju
Cinespace Juan
Dongsung Art Hall

Supported by

Korea Sweden Arts and Culture
Society

SEOUL Arthouse Momo

Tue. 5 - Mon. 11 November

BUSAN Busan Cinema Center

Thu. 7 - Wed. 13 November

GWANGJU Cinema Gwangju

Fri. 15 - Tue. 19 November

INCHEON Cinespace Juan

Fri. 15 - Sun. 17 November

DAEGU Dongsung Art Hall

Fri. 22 - Thu. 28 November



Embassy of Sweden
Seoul



Swedish
Institute



Swedish
Film Institute



SVERIGE · REPUBLIKEN KOREA
대한민국 · 스웨덴
Since 1959

제8회 스웨덴영화제 모든 영화는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며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한영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All films are subtitled only in Korean. Consecutive interpretation in Korean and English will be provided for the guest visit programs.



제8회 스웨덴영화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는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영화 산업과 영화에 대한 애정은 스웨덴과 대한민국 양국의 많은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입니다. 창조 산업에서 스마트시티, 녹색 사회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솔루션을 선도하는 진정한 얼리어답터이기도 합니다.

2019년은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기념하기 위해 1950년에서 1957년까지 운영된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이 스웨덴영화제 특별 상영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스웨덴영화제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언제나 존재하는 도전과 고통, 갈등을 직시하면서도 인간애와 희망을 잃지 않는 작품들로 구성된 다양한 장르의 최신 인기 스웨덴 영화 8편을 선보입니다.

이 훌륭한 영화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운이 남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젊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당대의 편견을 깨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작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부산 야전병원에 근무했던 스웨덴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에 한국전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성공의 회오리 바람이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스웨덴영화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 양국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견고히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스웨덴과 주한스웨덴대사관 행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대사관 소셜미디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뵈 세스 또 만나요 Vi ses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Culture is an important part of modern diplomacy – it is building bridges and it is deepening the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and among people. A strong film industry and the love for film is only one of many similari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Sweden and Korea are regarded as two of the most innovative countries in the world. We are both truly early adopters of new ideas and groundbreaking solutions. This spans across so many areas, such as the creative industries, smart cities and green transition and much more.

2019 marks a very special year as we are celebrating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weden and Korea. In celebration of this the Swedish documentary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 about the Swedish Red Cross field hospital that operated from 1950 to 1957 - will be a key part of the film festival. In addition, there will be eight recent and very popular Swedish film from different genres. All the films have one thing in common - they tell the story of people facing challenges, sorrows and conflicts without losing humanity and hope.

These great films all leave a mark and they make you think. So, what made the young Astrid Lindgren break free from the society's norms and become the storyteller that the whole world would come to love? How did the Korean war impact the lives of the Swedish doctors and nurses serving, and of course the patients, at the Swedish Field Hospital in Busan? What happens when the whirlwind of success makes the shadows inside you turn darker?

I wish that this film festival will provide a space for cinema lovers in different parts of Korea to meet and to enjoy the diversity of issues addressed by each film. By doing so, you will be part of strengthening the diverse and grow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Sweden.

If you are curious to learn more about Sweden or our work at the Embassy, please follow us on social media.

Vi ses,

Jakob Hallgren
Ambassador of Sweden to the Republic of Korea

베리만의 심장,
2019년의 맥박으로-
영화 강국 스웨덴의
현재 진행형을 만나다

한국의 영화 관객들에게 스웨덴은 잉마르 베리만 감독으로 친숙한 나라다. 잉마르 베리만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했던 2018년 개최된 제7회 스웨덴영화제는 베리만에게 보내는 헌사이기도 했다.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자국의 언어로 좋은 영화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자국 산업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많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다. 스웨덴 영화의 풍요로운 전통과 함께 2019년에도 여전히 동시대의 감독들이 스웨덴 영화 역사의 “현재”를 왕성하게 써내려 가고 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19년에 개최되는 제8회 스웨덴영화제는 양국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그의 미가 더욱 각별하다.

2018-2019년 스웨덴 영화계의 눈에 띄는 특징은 스웨덴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할리우드에 입성했던 감독들의 “홈커밍”이다. <렛 미 인>의 감독 토마스 알프레드손은 할리우드 프로젝트인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글로벌 프로젝트 <스노우맨> 이후, 잉마르 베리만에게 헌정된 단편 <베리만스 레리퀴리움>을 연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 스웨덴의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 <엔손리간>의 리부트에 착수, 올해 11월 22일 스웨덴에서 첫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밀레니엄>시리즈로 스웨덴 스릴러의 날카롭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다니엘 알프레드손 감독 역시, <밀레니엄>시리즈를 능가할 스웨덴 최고의 범죄 소설 작가 호칸 네세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인트리고> 3부작을 연출하며 스웨덴 영화계로 귀환했다.

잉마르 베리만에게 헌정되었던 2018년 제7회 스웨덴영화제의 태그 라인이 “헌사”였다면, 올해 2019년 스웨덴영화제의 태그 라인은 “맥박”이다. 특히 2019년 스웨덴영화제는 사람들이 살아 가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하는 고통과 갈등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그러면서도 인간애와 희망을 잃지 않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Meet Sweden through
the latest trends of its
powerful film culture

For Korean audiences, Sweden is known as the home country of director Ingmar Bergman. Particularly, last year's 7th Swedish Film Festival was a tribute to Ingmar Bergman celebrating the centenary of the birth of the Swedish master of cinema. Sweden is one of the few leading countries that owns an active film industry in its own language and that is successful in its home country. While the wealthy traditions of Swedish cinema keep being re-explored, the producers of our times are writing the “next chapters” of Swedish film history.

In 2018-2019, the most notable trend in Swedish cinema is “Homecoming” of the Swedish directors who have been globally acclaimed with their Swedish-made films and entered Hollywood and the global film scene. Tomas Alfredson, the director of <Let the Right One In>, came back home after his Hollywood project <Tinker Taylor Soldier Spy> and a global project <Snowman>, to make a short story dedicated to Ingmar Berman <Bergmans Reliquarium> and to reboot the famous Swedish drama series <Jönssonligan (The Jönsson Gang)>. Director Daniel Alfredson came back to Sweden after attracting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presenting the sharp and elegant style of Swedish thriller with the <Millennium> series. Recently, he has produced the <Intrigo> trilogy which is even expected to overshadow the success of the <Millennium> series. It is based on the novel by the same title written by Håkan Nesser, one of the best crime novel writers in Sweden. While last year's Festival tagline tribute to Ingmar Bergman was “Dedication”, the tagline of this year is “Pulse”. This year's films tell the story of people facing pain and conflict without losing humanity and hope, a relatable topic for the whole world.

음악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스웨덴을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테드 예르데스타드의 생애:
<문 오브 마이 오운>

<문 오브 마이 오운>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테드 예르데스타드가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담담히 따라간다. 마치 ABBA의 노래들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우면서도 서정적인 이지 리스닝 멜로디의 삽입곡 “A Moon of My Own”이나 “Satellite” 등은 스웨덴이 유로팝의 전성기를 주도하던 1970년대 후반으로 관객을 이끈다.

당대의 편견과 맞선
여성 작가의 도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는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일대기를 다룬 성장 영화. 종교적으로 엄숙한 성장 환경과 여성에 대한 당대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웃음에, 때로는 몰이해에 시달리면서도 작가로서의 꿈을 놓지 않은 소녀 아스트리드의 열정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울림으로 한국의 관객들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저 특이하고 재미있는 동화 속 주인공인줄로만 알고 있던 “말괄량이 삐삐”가 바로 다름아닌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페르소나였음을 깨닫게 된다.

복지 강국, 정치 선진국
스웨덴이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비온드 드림스>,
<골리앗>, <가든 레인>

그런가 하면 <비온드 드림스>와 <골리앗>, 그리고 <가든 레인>은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이 끝까지 지키려 하는 꿈과 가치를 전한다. 출소한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비온드 드림스>의 미리야,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대신해 범죄 세계에 들어가는 <골리앗>의 십대 소년 김미, 유년의 아이들로선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기억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한 <가든 레인>의 에릭과 엘린... 스웨덴 내 사회적 갈등을 바라보는 스웨덴 감독의 시선은 날카롭고 정확하지만, 시종일관 휴머니티를 잃지 않는다.

<Moon of My Own>:
A dramatic life story
about Ted Gärdestad,
one of the most famous
Swedish singer-
songwriters

Just like an old friend, <A Moon of My Own> follows the life journey of the famous Swedish singer-songwriter Ted Gärdestad who manages to overcome his fear, and ends up creating music unlike any other. The soundtracks of the film, such as “A Moon of My Own” or “Satellite” with soft and lyrical easy-listening melody invites the audience to the mood of the late 1970s, when Swedish music, including ABBA’s, led the heyday of Europop.

<Becoming Astrid>:
The challenges of
a female writer facing
the prejudice of her time

<Becoming Astrid> is a coming-of-age movie showing the life story of Astrid Lindgren, the well-known writer of 「Pippi Longstocking (Pippi Långstrump)」. Growing up in a strictly religious environment with prejudice against women, a little girl Astrid, suffered from being ridiculed and misunderstood. However, she never lost her dream and passion to be a writer. Her passionate story will captivate Korean audiences with resonance that goes beyond the times and borders. Through this film, we realize that the main character of “Pippi Longstocking”, usually known as a fun, original and imaginary girl, is in fact the persona of the writer Astrid Lindgren herself.

<Beyond Dreams>,
<Goliath>, <Garden
Lane>: social conflicts
from the Swedish
perspective, from a
society that is the
product of advanced
welfare and politics

<Beyond Dreams>, <Goliath>, and <Garden Lane> portray dreams and values that the main characters try to keep to the end, in spite of painful situations and conditions closing in on their lives. Branded as an ex-convict for life, Mirja of <Beyond Dreams> does not lose her self-confidence and dignity, while the teenager Kimmie of <Goliath> takes up his father’s criminal activity once his father ends up in prison. Eric and Elin of <Garden Lane> have grown up, respectively accepting in a different way their memories too tragic for teenagers to bear. Even in a highly developed country like Sweden, they cannot avoid social conflicts such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mmigration issues and family crises. Swedish directors deal with those problems with sharp and insightful perspectives, all the while without losing humanity at all times.

고통을 축제로
갈등을 유머로-
삐삐의 나라에서 날아온
유쾌한 아이들의 이야기:
<업 인 더 스카이>,
<몽키>, <아마추어>

엄숙하고 진중한 베리만의 전통만큼이나, 아무리 힘들고 난감한 상황이라도 유머와 즐거움으로 승화시켜내는 “말괄량이 삐삐” 역시 스웨덴 문화의 귀중한 자산이다. <업 인 더 스카이>의 어린 소녀 포탄은 무관심한 부모 때문에 숲 속에 버려지다시피 했지만, 오히려 그 덕에 우주로 날아가는 신기하고 짜릿한 모험의 세계로 초대된다. <몽키>의 조숙한 소년 프랭크는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예측 불가, 천방 지축인 원숭이와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 독일의 저가형 대형 할인점 체인 “슈퍼 빌리”를 유치해,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겠다”는 신자유주의적 욕망이 지배하는 작은 시골 마을 라포르쉬에서 <아마추어>의 두 소녀가 휴대폰과 셀카봉으로 어른들의 위선에 맞서는 과정은, 너무 진지해서 오히려 유쾌하다.

2019년 제8회를 맞는 스웨덴영화제는 올해부터 5대 도시, 5개 영화관으로 확장해 2019년 11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부산 영화의전당, 인천 영화공간주안, 광주 광주극장, 대구 동성아트홀에서 개최된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해외 국가 영화제 중 최대 규모,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영화제는 특히, 올해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역사적으로 엄선된 작품뿐 아니라 민간 교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전쟁이 맺어준 한국과 스웨덴의 특별한 인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이 특별 상영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한국과 스웨덴이 맺어온 우호와 친선의 역사에 각별한 의미를 더한다.

<Up in the Sky>,
<Monkey>, <Amateurs>:
from the country of
Pippi: pain turns into
happiness, conflict to
humor

Bergman's strict and solemn tradition in “Pippi Longstocking”, sublimates even the most difficult and unbearable situations into humor and pleasure; a valuable asset of Swedish culture. Pottan, a young girl of <Up in the Sky>, is almost abandoned in the forest by her indifferent parents. However, thanks to this, she is invited to a world of curious and thrilling adventure, flying to outer space. Frank, the mature boy of <Monkey>, even before recovering from a sudden loss, goes on a journey to Thailand with an unpredictable and restless monkey. In <Amateur>, the people living in Lafors, a small village obsessed with neo-liberalism and pursuing the ideal of “We'll also live well”, try to attract a big German discount shop Superbilly. The process of the two girls confronted with the adults' hypocrisy, holding a cellphone and a selfie stick in their hands, is all the more hilarious because it is so serious.

In 2019, the Swedish Film Festival will be expanded to 5 cities and 5 movie theaters. The festival will be held in Arthouse Momo in Seoul, Busan Cinema Center in Busan, Cinespace Juan in Incheon, Cinema Gwangju in Gwangju, and Dongsung Art Hall in Daegu from November 5th to November 28th.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Sweden and Korea, a special screening of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a documentary about Swedish Red Cross field hospital during the Korean War, is planned at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제8회
스웨덴영화제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상영작 소개 Screening Films

등급 Ratings **G** 전체관람가 **12** 12세이상관람가
15 15세이상관람가 **R** 청소년관람불가

자막 Subtitle **K** 한국어

관객과의 대화 **GV** 시네마토크 **TALK**
Guest Visit Program Cinema Tal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Ted - För kärlekens skull)



2018 / 120분 / 드라마 15 K 개막작

감독 한네스 홀름
출연 아담 폴손, 피에테르 비타넨, 해피 안켈, 요나스 칼손, 요한 헤덴베리,
토베 에드펠트, 마리아 쿨레

2018 / 120min / Drama 15 K

Director Hannes Holm
With Adam Pålsson, Peter Viitanen, Happy Jankell, Jonas Karlsson,
Johan Hedenberg, Tove Edfeldt, Maria Kulle

<오베라는 남자>의 감독 한네스 홀름이 들려주는 스웨덴 대중음악, 사랑, 성공에 관한 따뜻하고 울림 있는 이야기이자 뛰어난 재능의 뒤를 따라다니는 어둡고 위협적인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70년대에 활동한 음악 천재 테드는 뛰어난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뀐다. 음악계의 거물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고, 테드는 전국의 무대를 모두 정복하며 십대 소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성공의 파도가 밀어닥치자 형의 무조건적 사랑에도 테드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테드 주변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만 가는데...

유로팝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싱어 송 라이터 테드 예르데스타드의 이야기를, 실제 테드의 친형이자 작사가였던 케네스 예르데스타드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해 생생한 디테일을 더했다. 2019년 스웨덴 굴드바게 시상식에서 프로덕션 디자인 상을 수상했다.

From the director of A Man Called Ove comes a warm, heartfelt story about love, Swedish pop music and success - and how brilliance often brings something dark and threatening along with it. Ted is a musical genius and a wonder kid of the seventies whose life changes overnight when he gets discovered. All of a sudden, he finds himself surrounded by the musical elite, conquering every stage and the heart of every teenage girl. But in the whirlwind of success, despite the unconditional love from his brother, Ted finds himself alone and the shadows around him turn darker...

In order to reconstruct in all genuineness the life of the legendary Swedish singer-songwriter Ted Gärdestad who left an important mark on the history of Euro Pop, Ted's older brother and lyric writer Kenneth Gärdestad joined this film as one of the scenarists. The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awarded this film with the Best Production Design Prize.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Unga Astrid)



2018 / 123분 / 드라마 15 K

감독 페르닐레 피셰르 크리스텐센

출연 알바 아우구스트, 헨릭 라파엘센, 트리네 뒤르홀름, 마리아 본네비,
마그누스 크레페르, 비온 구스타브손, 빌리 페트리 램네크

2018 / 123min / Drama 15 K

Director Pernille Fischer Christensen

With Alba August, Henrik Rafaelsen, Trine Dyrholm, Maria Bonnevie,
Magnus Krepper, Björn Gustavson, Willy Petri Ramne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어린시절,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일어난다. 기적이라고도,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뀐다. 덕분에 그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준 여성이자 전 세계가 사랑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었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는 종교적인 가정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 당대의 사회적 규범에서 해방돼 자기 길을 걷기로 한 어린 아스트리드의 이야기이다.

<말괄량이 삐삐>의 원작자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When Astrid Lindgren was very young something happened that affected her profoundly. It proved to be both a miracle and a calamity and came to shape her entire life. This was the event that transformed her into one of the most inspiring women of our age and into the storyteller a whole world would come to love. This is the story of when a young Astrid who despite the expectations of her time and religious upbringing, decided to break free from society's norms and follow her heart.

This movie depicts the life story of Astrid Lindgren, the author of <Pippi Longstocking>.



아마추어 Amateurs (Amatörer)



2018 / 102분 / 코미디&드라마 12 K

감독 가브리엘라 피슬러

출연 사라 알도우아일리, 위아라 알리아도테르, 프레드릭 달, 샤다 이스마엘,
마리아 노라, 수산네 헤드만

2018 / 102min / Comedy & Drama 12 K

Director Gabriela Pichler

With Zahraa Aldoujailli, Yara Aliadotter, Fredrik Dahl, Shada Ismaeel,
Maria Nohra, Susanne Hedman

‘라포르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포르쉬는 새 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스웨덴의 생기 없는 시골 마을이다. 독일의 체인형 할인점이 마을에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주민들은 희망에 들뜬다. 새 일자리 5백 개가 모든 걸 바꿔 놓을 테니 말이다. 곧 라포르쉬 마을의 흥륭함을 보여줄 홍보 영상이 제작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소녀 아이다와 다니는 휴대폰 카메라로 홍보 영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찍어 나간다. 그렇게 라포르쉬 마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다.

프레임에 담기는 것에만 신경 쓰는 프로페셔널 영화 제작진과 프레임 이면의 의미까지 담아내려 노력하는 두 아마추어 소녀 영화 감독을 대조시키며, “영화”라는 예술 매체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질문하는 도전적이고 야심적인 영화. 2019년 스웨덴 골드바게 시상식에서 감독상, 각본상, 남우 주연, 여우 주연상 등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Welcome to Lafors – a sleepy Swedish provincial town in desperate need of a fresh start. When a German discount store chain considers establishing itself in town, there is hope. Five hundred new jobs would change everything! A commercial is to be produced, to show the town’s worthiness, but two bright high school girls, Aida and Dana, use their mobile cameras to tell a different story. The fight about the true story of Lafors has begun.

A defiant and ambitious question on the essence of the cinema as media is uttered in this film which contrasts the professional movie production process focus only on the elements shown in the frame, the process of two amateur female directors trying to reveal what lies beneath. This movie was nominated for 6 categories including the best director, the best script, the best actor, and the best actress at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Upp i det blå)



2016 / 82분 / 코미디  

감독 페테르 렌스트란드

출연 미라 포르셀, 아담 룬드그렌, 구페 푼크, 페테르 렌스트란드,
셰블리 니아바라니, 이다 엔볼

2016 / 82min / Comedy  

Director Petter Lennstrand

With Mira Forsell, Adam Lundgren, Guffe Funck, Petter Lennstrand,
Shebly Niavarani, Ida Engvoll

여덟 살 소녀 포탄은 여름 캠프를 가던 중 이상한 캐릭터들이 모여 사는 재활용 센터에 가게 된다. 처음엔 망설이던 그들도 차츰 포탄을 돌봐주기 시작하고, 포탄은 곧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다. 바로 높은 울타리 뒤편에서 우주로 가는 로켓을 만들고 있었던 것. 우주로 날아간 사상 최초의 여덟 살 소녀가 된 포탄과 함께 코미디와 모험, 우정을 만끽해 보자.

인형에, 로켓에, 쓰레기로 만든 보물이 등장하는 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영화는 보는 어른 관객조차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흔치 않은 발견이 될 가족영화. 세계 최대의 어린이 영화제인 체코 즐린 영화제에서 ECFA상을,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에서 어린이 심사위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Eight-year-old Pottan is going to summer camp, but by mistake she ends up at a recycling centre with some very peculiar characters. Reluctantly, they take care of Pottan, who soon discovers their secret. Behind a tall fence, they are working on a home-made space rocket... Comedy, adventure and unexpected friendships await, as Pottan becomes the first ever eight-year-old in space.

Featuring puppets, rockets and treasures made of trash, this unique and charming film is a rare kind of family movie for kids of all ages, making adult audiences become the child they once were. This film has been awarded the ECFA award at Zlin Film Festival in Czech, the biggest children's film festival in the world, as well as the Kids Jury Award at Zurich Film Festival in Switzerland.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Dröm vidare)



2017 / 90분 / 드라마 15 K

감독 로이다 세케르세스

출연 에빈 아마드, 기셈 에르도안, 말린 페르손, 세겐 테스파이,
엘라 외흐만, 오티 멘페

2017 / 90min / Drama 15 K

Director Rojda Sekersöz

With Evin Ahmad, Gizem Erdogan, Malin Persson, Segen Tesfai, Ella Åhman,
Outi Mäenpää.

강도 미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미리야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그들 사이의 규칙에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깨닫는다. 게다가 중병에 걸린 엄마는 미리야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녀. 미리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과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시작하는데...

난관에 맞서는 미리야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 간의 유대관계가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위력을 흥미롭게 그려내는 영화. 북유럽 최대 영화제인 예테보리 영화제에서 노르딕 영화 최고 관객상을, 2019년 스웨덴 골드바게 시상식에서 최고 신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While serving her prison sentence for a failed robbery Mirja has been away from the gang and their rules. She returns home and confronts new circumstances: she brutally finds out that her mother is very ill and demanding. Mirja has to find a job or she'll be thrown out. In her ambition to handle the situation Mirja begins to lead a double life between the family and the gang.

Through the experiences of Mirja, this movie examines the depth and power of female relationships. The film won the Best Nordic Film Audience Choice at Göteborg Film Festival which is the largest film festival in Scandinavia as well as the Best New Artist Award at 2019 Guldbagge Awards of Sweden.



골리앗 Goliath (Goliath)



2018 / 88분 / 드라마 R K

감독 피에테르 그뢴룬드

출연 세바스티안 룽블라드, 요아킴 셸퀴스트, 코넬리아 안데르손,
홀게르 요한손, 엘리나 에릭손, 엘리자베스 아우간데르

2018 / 88min / Drama R K

Director Peter Grönlund

With Sebastian Ljungblad, Joakim Sällquist, Cornelia Andersson,
Holger Johansson, Elina Eriksson, Elisabeth Augander

김미는 스웨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김미는 가족을 돌보며 아버지 대신 범죄에도 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2019년 스웨덴 골드바게 시상식에서 각본상, 남우 주연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주인공 김미 역의 세바스티안 룽블라드는, 직업 배우가 아닌 일반인 배우로 리얼리티를 추구하려 했던 제작진이 스웨덴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그 주변의 맥도날드까지 뒤져 찾아낸 보석.

Kimme is a boy living in a small mill town in anywhere, Sweden. He is expected to support his family, as well as taking up his father's criminal activity once his old man ends up in prison.

At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this movie received the Best Script Award, the Best Actor Award, and the Best Music Award. Sebastian Ljungblad, the main character Kimme, is a nonprofessional actor. He has been described as a "hidden gem". The production team found him after a long casting journey at high schools, and even some McDonalds, all over Sweden.



몽키 Monky (Monky)



2017 / 90분 / 코미디 G K

감독 마리아 블롬

출연 율리우스 이메네스 후고손, 마틸다 포르스 린드스트룀, 프리다 할그렌,
니나 오켈룬드, 요한 피에테르손

2017 / 90min / Comedy G K

Director Maria Blom

With Julius Jimenez Hugoson, Matilda Forss Lindström, Frida Hallgren,
Nina Åkerlund, Johan Petersson

<몽키>는 11살 소년 프랑크와, 비극이 닥친
후의 어느 날 저녁 프랑크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 긴팔원숭이의 비밀스러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원숭이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프랑크와 가족은 해답을 찾아
작은 스웨덴 마을을 떠나 태국 가장 깊은 곳의
정글로 스틸 넘치는 모험을 떠난다.

<심플 사이먼>의 작가 요나탄 회베리가
각본에 참여했다. 영화에 출연한 긴팔원숭이는
컴퓨터로 제작되었다. 그 제작비용을 따져보면,
이 긴팔원숭이는 스웨덴 영화 역사상 최고의
출연료를 기록한 셈이다.

Monky tells the story of Frank, 11, and his secret
friendship with a mysterious gibbon ape that
unexpectedly shows up in his home one night
after tragedy strikes. It's soon clear that this
is no ordinary animal and in the search for
answers Frank and his family embarks on a
thrilling adventure that will take them from a
small Swedish village to the deepest jungles
of Thailand.

Jonathan Sjöberg, the writer of <Simple
Simon>, participated in the script-writing of
this film. The monkey is computer animated and
it is said that the cost of the animation made
him the highest-paid "actor" in the history of
Swedish movies.



가든 레인 Garden Lane (Trädgårdsgatan)



2018 / 114분 / 드라마&로맨스 **R K**

감독 올로프 스파크

출연 카린 프란츠 쉐뢰프, 시몬 J. 베리에르, 에밀 알리페우스, 나이키 링크비스트,
에바 프리쇼프손, 린다 몰린

2018 / 114min / Drama & Romance **R K**

Director Olof Spaak

With Karin Franz Körlöf, Simon J. Berger, Emil Algeus, Nike Ringqvist,
Eva Fritjofson, Linda Molin

오랜만에 만난 에릭과 엘린은 둘이 처음 만났던 어둡고 마법 같은 여름을 회상한다. 둘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둘의 부모 린다와 피에테르는 마약 중독자였다. 네 사람은 아름답고 강렬했던 몇 개월을 진짜 가족처럼 보낸다. 하지만 린다와 피에테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두 아이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는데...

시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남매의 아름다운 성장영화. 촬영 감독 크리스토퍼 옌손에 의해 담겨진, 에릭과 엘린이 유년 시절 특별하고 비극적인 여름을 보낸 황무지의 풍경이, 황량하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2019년 스웨덴 골드바게 시상식 촬영상 수상.

Eric and Elin reminisce about the dark, magical summer when they first met. They were just kids and their parents, Linda and Peter, were drug addicts.

During a few violent but beautiful...

This beautifully poetic movie tells a story about a sister and a brother who grew up in pain. The director of photography Kristoffer Jönsson's captures the desolate and compelling beauty of the landscape of wasteland where Eric and Elin spent a special and tragic summer in their childhood. This artistic achievement was even awarded with the Best Cinematography Prize in 2019 Guldbagge Awards in Sweden.





제8회
스웨덴영화제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스웨덴-대한민국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2019 / 60분 / 다큐멘터리 (6) (K)

감독 미카엘 헤드룬드

2019 / 60min / Documentary (6) (K)

Director Mikael Hedlund

1950년 9월 23일 유엔사령부의 부산 지역 탈환 직후, 150명의 스웨덴 의료진 및 의료 지원단이 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했다. 부산시 북부에 배치된 이들은 도착 이틀 후부터 68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최초의 의료 지원단이었다.

On September 23, 1950, short after the UNC breakout from the Busan perimeter, 150 Swedish medical and other field hospital personal arrived in Busan harbor, South Korea. They were deployed just north of the city and received their first 68 patients two days later. By that, the first non-American/Korean medical unit, during the Korean war, was established.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은 한국전쟁으로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머나먼 한국 땅을 찾은 스웨덴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스웨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으로 1950년 부산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 건립을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69년이 지나 현재는 노령이 된 이들의 이야기는 스웨덴과 한국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를 지속하게 되었는지 보여준다. 양국이 현대 민주국가로 거듭나 국제 관계를 이루어 온 데 대한 이해를 돕는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전쟁의 결과에 대해 결론지어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스웨덴의 기여는 한국전쟁 전후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귀감이 되었다.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은 AMF 재단 소유의 AKA영화사에서 제작했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is a historical documentary about the men and women who traveled to the far away Korea and their meetings with wounded soldiers and local patients.

With the largest humanitarian undertaking ever made by Sweden, in 1950 volunteers rushed to help setting up the Swedish Red Cross Field Hospital in Busan. This was 69 years ago. Today the aging Swedish samaritans can testify how the Korean war became the start of new relations, new friendships, and lasting, strong bonds between Sweden and Korea.

These are stories never told before and are an important and touching part of our understanding of the building of democratic nations and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ocumentary has been produced by AKA-Film Company, owned by the AMF Foundation.





제8회
스웨덴영화제

The 8th
SWEDISH FILM FESTIVAL

상영 시간표 Screening Schedule

등급 Ratings **G** 전체관람가 **12** 12세이상관람가
 15 15세이상관람가 **R** 청소년관람불가

자막 Subtitle **K** 한국어

관객과의 대화 **GV** 시네마토크 **TALK**
Guest Visit Program Cinema Talk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1/5 화(Tue)			14:10 15 K GV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7:4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9:5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1/6 수(Wed)	11:3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3:20 G K 몽키 Monkey	15:20 15 K GV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9:00 15 K GV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1/7 목(Thu)	11:4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3:3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7: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9:30 R K 골리앗 Goliath
11/8 금(Fri)	11:4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3:50 R K 골리앗 Goliath		17:00 G K 몽키 Monkey	19:3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1/9 토(Sat)	11: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3:00 G K 몽키 Monkey	15: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7:3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20: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1/10 일(Sun)	11:0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3:3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5:3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7:0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9:10 R K 골리앗 Goliath
11/11 월(Mon)	11:3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4: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7:0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9: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 11월 5일-11일 스웨덴영화제 서울 상영시간표는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www.arthousemomo.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화티켓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선착순 현장 배포 (무료관람).
- Screening Schedule is open at Arthouse Momo website www.arthousemomo.com and tickets are available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everyday starting from 10:30 a.m. (Free tickets).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1/7 목(Thu)					19:00 15 K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1/8 금(Fri)	11:50 G K 몽키 Monkey	13:4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5:3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7:4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9:00 15 K GV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1/9 토(Sat)	11: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3:20 15 K GV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6:4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8:00 R K 골리앗 Goliath	20: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1/10 일(Sun)	13:3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5:2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7:2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9:30 G K 몽키 Monkey	
11/11 월(Mon)	13:30 R K 골리앗 Goliath	15:2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7:4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9:3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1/12 화(Tue)	13:30 G K 몽키 Monkey	15:2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7:4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9:3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1/13 수(Wed)	14:3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5:5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7:40 R K 골리앗 Goliath	19:3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 11월 7-13일 스웨덴영화제 부산 인터넷 예매: 11월 4일 오전 9시 오픈 (전체 좌석의 20%) / 현장예매: 11월 6일 오전 9시 오픈(전체 좌석의 80%)
- 상영시간표 및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에서 확인 가능 (무료관람).
- Screening schedule is available on Busan Cinema Center website www.dureraum.org
- Tickets are open on 4 November 9:00 a.m. via on-line reservation and also open on 6 November 9:00 a.m. via at-site reservation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Free tickets).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1/15 금(Fri)				19:20 15 K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6 K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1/16 토(Sat)	10:5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3:1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5:00 15 K TAL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9:2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1/17 일(Sun)	10:5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3:10 G K 몽키 Monky	15:00 R K 골리앗 Goliath	17: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9:2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1/18 월(Mon)	10:4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3:1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5:30 R K 골리앗 Goliath	17:2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9:20 15 K TAL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1/19 화(Tue)	10:5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3:1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5:0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7:30 G K 몽키 Monky	19:20 R K 골리앗 Goliath

- 11월 15일 - 19일 스웨덴영화제 광주 상영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화티켓은 매일 오전 10:00부터 현장 배포(무료관람).
- Screening schedule is open at Cinema Gwangju website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and tickets are available via on-site reservation everyday starting from 10:00 a.m. (Free tickets).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1/15 금(Fri)	3관		16:0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8:2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20: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4관		16:20 15 K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8:30 12 K 아마추어 Amateurs	20:3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1/16 토(Sat)	3관	13:30 15 K TAL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6:5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8:3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20:30 G K 몽키 Monky	
	4관	13:2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4:3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6:2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8:20 R K 골리앗 Goliath	20: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1/17 일(Sun)	3관	13:3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5:20 G K 몽키 Monky	17: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9:10 R K 골리앗 Goliath	20:5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4관	13:20 G K TAL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6: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8:1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20:25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 11월 15-17일 스웨덴영화제 인천 상영시간표는 영화공간주안 홈페이지(www.cinespacejuan.com)에서 확인 가능하며(무료관람), 영화티켓은 11월 1일(금)부터 영화공간주안에서 현장예매만 가능(인터넷 예매불가).
- Screening schedule is open at Cinespace Juan website www.cinespacejuan.com and tickets are available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from Friday, 1 November (Free tickets).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1/22 금(Fri)			14:30 15 K 개막작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7:0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9:20 R K 골리앗 Goliath
11/23 토(Sat)	11:00 G K 몽키 Monkey	12:4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5:00 15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7:00 15 K TAL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9:3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1/24 일(Sun)	11:0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2:50 R K 골리앗 Goliath	14:3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6:10 15 K TAL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9:2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1/25 월(Mon)	11: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3: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4:40 G K 몽키 Monkey	16:2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8:00 15 K TAL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1/26 화(Tue)	11:00 R K 골리앗 Goliath	13:0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4:2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6:4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9: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1/27 수(wed)	11:00 15 K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되기 Becoming Astrid	13:20 G K 업 인 더 스카이 Up in the Sky	15: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17:2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9:00 G K 몽키 Monkey
11/28 목(Thu)	11:00 15 K 비욘드 드림스 Beyond Dreams	12:50 12 K 아마추어 Amateurs	15:00 15 K 문 오브 마이 오운 A Moon of My Own	17:20 G K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 The Swedes in the Korean War	19:00 R K 가든 레인 Garden Lane

• 11월 22일 - 28일 스웨덴영화제 대구 상영시간표는 동성아트홀 홈페이지(<http://artmovie.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화티켓은 매일 오전 10:00부터 선착순 배포(현장무료관람). 단, 개막작 티켓은 사전신청.

• Screening schedule is open at Dongsung Art Hall website <http://artmovie.co.kr> and tickets are available on first-come-first-served basis everyday starting from 10:00 a.m. (Free tickets). Tickets for the opening film are only needed to be reserved.

수도 스톡홀름
언어 스웨덴어
공식 소수 언어 사미어, 핀란드어, 메엔키엘리어, 이디시어, 로마니아어
인구 1천만 명
국토 면적 407,000 KM², 유럽에서 5번째로 크다.
인구 밀도 24.5명/KM²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통화 스웨덴 크로나(SEK)
기대 수명 남자 80.6세, 여자 83.7세
종교 스웨덴 교회는 루터교이지만, 실제로는 세속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국제전화 국가번호 +46
시간대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1시간 빠르다.

Capital Stockholm
Language Swedish
Official minority languages Sami, Finnish, Meänkieli, Yiddish and Romani Chib
Population 10 million
Land area 407,000 km², the fifth largest country in Europe
Population density 24.5/km²
Form of government Parliamentary democracy, constitutional monarchy
Currency Swedish krona, SEK
Life expectancy Men 80.6 years, women 83.7
Religion The Church of Sweden is Evangelical Lutheran, but in practice the country is very secularised
Calling code +46
Time zone GMT +1



유용한 링크
The official site of Sweden
Statistics Sweden
USEFUL LINKS
Sweden.se
Scb.se

영화제 문의
CONTACTS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02-363-5333
SEOUL Arthouse Momo
www.arthousemomo.com

부산 영화의전당 051-780-6000
BUSAN Busan Cinema Center
www.dureraum.org

광주 광주극장 062-224-5858
GWANGJU Cinema Gwangju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인천 영화공간주안 032-427-6777
INCHEON Cinespace Juan
www.cinespacejuan.com

대구 동성아트홀 053-425-2845
DAEGU Dongsung Art Hall
www.artmovie.co.kr

주한스웨덴대사관 02-3703-3700
Embassy of Sweden in Seoul
Infosweden.seoul@gov.se